



승엽 “미국行 아직은 아니다”

“요미우리 내손으로 우승시킨 후 떠나겠다” 하라 감독 은혜도 갚고 싶어... 잔류 시사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요미우리를 우승시킨 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 호치'가 13일 인터넷에서 보도한 독점 인터뷰에서

이승엽은 “지금은 요미우리에 남고 싶은 기분이 강하다. 우승하고 나서 (메이저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요미우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승엽은 “최종전에서 주니치가 행가래치는 것을

보고 거인을 우승시키고 싶었다. 우승시킬 수 없어서 분한 마음이 가득했다”면서 “내 손으로 하라 감독을 행가래치고 싶다”고 요미우리 잔류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요미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되 돌려줬다. 하라 감독은 나를 믿어주었다.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엽은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하다 잔류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당연한 것 같다. 모두와 함께 기쁨과 괴로움을 경험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삼성과 롯데 마

린스에서 모두 우승을 경험했다. (요미우리를 포함해) 전부 우승하고 나서 마지막에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메이저리그에 가면 내가 요미우리를 이용했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요미우리에 대한) 애정과 (메이저리그에 대한) 꿈으로 고민하고 있다. 인생에서 마지막 큰 선택이 될지 모른다”고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선화 공동 3위 굿샷!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1R 오초아·소렌스탐 선두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이선화(20·CJ)가 LPGA '별들의 잔치'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컵에 도전할 디딤돌을 놓았다. 이선화는 13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 캐년코스(파72.6천 645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치는 선전을 펼쳤다. 공동 선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안리카 소렌스탐(스웨덴·이상 67타)에 단 1타 뒤진 이선화는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슬라이드클래스 우승이

후 4개월만에 2승째를 거머쥔 기회를 만들었다. 더구나 이번 대회는 4개 메이저대회 우승자와 상금랭킹 상위 선수 20명만 출전하는 '스타워즈'라 이선화는 신인왕을 자축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선화는 “코스가 길어 내겐 불리했는데 뒷바람이 불어 거리 부담을 덜었다”면서 “이 대회에 출전한 것만도 영광인데 우승까지 하면 기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빅혼골프장에 집이 있는 박세리(29·KTF)는 1언더파 71타를 치며 공동 7위에 자리잡아 '코리언 파워'의 리더 노릇을 했다. “오즘은 압박감 없이 편하게 골프를 친다”는 박세리는 “후반에 진행이 밀리면서 리듬을 잃은 게 아쉽지만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마리의 나비처럼...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체조세계선수권대회에서 덴마크 선수가 마무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격당한 아픔을 씻겠다는 각오로 나선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1년 전 약몽을 되풀이했다. 전반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하면서 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미셀 위는 12번홀(파5)에서 이글을 뽑아내 기세를 올렸지만 14번홀(파4)에서 '앙파' 퀴드러플 보기로 무너지고 말았다. 티샷을 오른쪽 덩굴 근처로 날린 위성미는 어려운 자세로 볼을 치다가 헛치는 실수를 저질렀고 다음 샷도 덩굴 속에 떨어져 벌타를 받고 겨우 페어웨이로 탈출하느라 5타를 허비했다. 6타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미셀 위는 4m 짜리 퍼트도 놓쳐 스코어카드에 '8'을 적어 내아닌 했다. 가장 어렵다는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 위안을 삼았지만 1라운드 성적은 이글 1개, 버디 2개, 더블보기 1개를 곁들여 2오버파 74타로 공동 12위에 그쳤다. 김미현(29·KTF)과 이미나(25·KTF)도 74타로 12위그룹에 머물렀고 한희원(28·힐라코리아)은 공동 17위(4오버파 76타), 장정(26·기업은행)은 78타를 쳐 20명 가운데 19위로 처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상욱 48위 '무난한 출발'

PGA 프라이스닷컴오픈 첫날

나상욱(22·코오롱)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복귀 무대인 프라이스닷컴오픈에서 무난하게 출발했다. 손가락 부상 때문에 한동안 PGA 투어에 나서지 못했던 나상욱은 13일(한국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캐년스TPC(파71·7천19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2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48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코스에서 보기없이 버디 8개를 쏟아낸 밥 트웨이(미국)와 서머린TPC(파72·7천243야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를 잡은 스티브 플래시(미국)가 8언더파로 공동 선두로 나섰다. 세계 랭킹 2위 짐 퓨릭(미국)도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를 쳐 나상욱과 함께 48위그룹에 자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선화의 칩샷 이선화(20·CJ)가 LPGA '별들의 잔치'삼성월드챔피언십 1라운드 18번홀을 그린 주변에서 칩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 메츠 먼저 1승

美 NLCS 1차전 세인트루이스 꺾어

뉴욕 메츠가 베테랑 투수 톰 글래빈(40)과 강타자 카를로스 벨트란(29)을 앞세워 월드시리즈를 향해 한 발 먼저 나아갔다. 메츠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세이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1차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2-0으로 꺾었다. 선발투수로 나온 글래빈은 7이닝 동안 안타 4개, 볼넷 2개만 내주는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고 벨트란은 0-0인 6회에 결승 투런 홈런 포를 터뜨렸다. 메츠와 세인트루이스는 14일 세이스타디움에서 각각 우완 존 메인과 크리스 카펜터를 선발투수로 내세워 2차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치기 사건' 지단 등 50명

FIFA, 올해의 선수 후보로

2006 독일 월드컵축구 결승에서 일명 '박치기 사건'을 일으켜 현역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프랑스대표팀 중원사령관 지네딘 지단(34)이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 FIFA는 13일(이하 한국시간) 홈페이지(www.fifa.com)를 통해 지단 등 올해의 선수 후보로 남자 30명, 여자 20명을 발표했다. 남자 후보에는 독일 월드컵 우승·준우승국인 이탈리아(잔루이지 부폰, 파비오 칸나바로, 엔나오 가루소, 알렉산드로 네스타, 안드레아 피를로)와 프랑스(티에리 앙리, 프랑크 리베리, 릴리안 튀람, 파트리크 비에라, 지단)가 가장 많이 다섯 명씩이었다. '전차군단' 독일이 미하엘 발라크, 미로슬라프 클로제, 필리프 람, 엔스 레만 등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7명의 후보를 내놓았던 '삼바군단'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지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에 뽑혔던 호나우지뉴를 비롯한 아드리아누, 카카 등 3명으로 줄었다. 아시아 국가는 단 한 명의 후보도 배출하지 못했다. 소속 팀별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첼시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AC 밀란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치기(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팀 동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웨인 루니(잉글랜드)도 후보에 올랐다.



14일(토)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09:00·Xports)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화-현대)(13:30·KBS SKY SPORTS, 13:50·KBC, SBS스포츠)
▲제2회 메리츠금융 클래식 골프 2R(14:00·MBC ESPN)
▲프로축구 후기리그(수원-성남)(16:50·SBS스포츠, 17:00·MBC ESPN, KBS SKY SPORTS)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워킹-맨체스터Utd)(20:30·MBC ESPN), (아스톤 빌라-토트넘)(23:00·MBC ESPN)

15일(일)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레딩-첼시)(01:00·MBC ESPN)
▲LPGA 삼성월드챔피언십 3R(03:00·KBC)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05:00·Xports)
▲제2회 메리츠금융 클래식 골프 최종R(14:00·MBC ESPN)
▲프로축구 후기리그(대전-포항)(14:50·SBS스포츠)
▲K-리그(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15:00·KBS SKY SPORTS)
▲06/07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안양 한라-아이스벅스)(17:00·KBS SKY SPORTS)
▲06/07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삼프도리아-AC 밀란)(22:00·KBS SKY SPORTS)

아시아게임 여자농구대표팀 확정

대한농구협회는 13일 12월 도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여자대표팀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 가운데 센터 강지숙(27·198cm)과 가드 박선영(26·177cm)이 빠지고 정미란(21·184cm), 양지희(22·185cm)가 선발됐다. 여자농구 대표팀은 15일 오후 태릉선수촌에 모여 합숙 훈련에 들어간다. ◇여자농구 대표팀 명단 ▲감독=유수중(전 삼성생명 감독) ▲코치=이옥자(전 일본 상송화장품 감독) 김영주(우리은행) ▲가드=최윤아(신한은행) 이정은(우리은행) ▲포워드=김은혜(우리은행) 변연하(삼성생명) 김정은(신세계) 김세동(삼성생명) 정미란(금호생명) ▲센터=신정자(금호생명) 김계령 흥현희(이상 우리은행) 양지희(신세계) 강영숙(신한은행)

“이관우의 수원이나” “김두현의 성남이나”

주말 프로축구 국가대표급 양팀 중원싸움 관심 빛고를 원정 서울도 박주영 조커활용 필승카드

이번 주말 수원과 성남이 만난다.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후반기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후기리그 1위팀 수원과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이 14일 오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빅매치를 벌인다.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수원은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치다 지난 3일 전남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아직 5승2무1패(승점 17)로 후기리그 선두를 굳게 고수하고 있다. 성남은 4경기 연속 무승으로 주춤하다 다시 2연승을 달리며 힘을 내고 있다. 김학범 성남 감독은 전,후기 통합 우승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양팀 미드필더진은 국가대표들의 맞대

결이다. 수원은 송종국, 김남일, 백지훈에다 '대표급 이적생' 이관우로 중원을 짰다. 성남은 배여호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잡은 김두현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 시즌 대결에서는 수원이 1승1무로 강했다. 현재 승점 13으로 4위에 처져있는 성남은 수원을 잡을 경우 통합우승을 넘볼 수도 있다. 초반 선두를 달리다 6위까지 떨어진 FC 서울은 빛고를 원정에 나선다. 이장수 감독의 서울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2패)으로 주춤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 박주영이 살아나는 게 관건이다. 이 감독은 김은중과 두두를 선발로 내보낸 뒤 박주영을 '조커 카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천수가 부상으로 빠진 울산은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울산도 갈 길이 바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올 시즌 유난히 제주만 만나면 맥을 추지 못했다. 두 차례 맞대결에서 0-3, 1-2로 연패를 맞았다. 이번 대결이 마지막 실속 기회인 셈이다. '소리없이' 2위와 3위로 올라선 포항과 인천은 15일 각각 대구와 대전 원정에 나선다. 포항은 이동국의 공백을 거뜬히 메우고 있는 고기구가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에 도전하고 있고 인천은 최근 5경기 연속 무패(4승1무)로 '장외풍의 마법'이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